

# “시민사회가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화정아이파크 봉고참사 4주기

유가족협, 현장 인근서 위령제·추모식  
광주대표도서관 피해 가족 등도 참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방지책 마련” 호소

“시민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봉고 참사 4주기 추모식이 11일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치권 인사, 광주대표도서관 봉고 사고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지난 3주기까지는 사고 현장 내부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유가족협의회가 마련한 근처 상가에서 치러졌다.

상가 내부는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임시 분향소로 꾸려졌고, 제단 위에는 국화와 제수 음식이 놓였다.

희미한 촛불 아래 향 냄새가 퍼지며 현장은 암울한 분위기에 잠겼다.

추모식은 ▲묵념 ▲현화 ▲희생자 소개 ▲추모사 ▲공감의 시간 ▲호소문 낭독 ▲사고 현장 설명 순으로 이뤄졌다.

묵념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광주 화정아이파크 봉고 참사 4주기인 11일 유가족협의회가 공사현장 인근 상가에 마련한 임시 분향소에서 추모식이 열려 유가족들이 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인을 애도했고,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차례로 현화했다. 이어 참사 희생자 6명의 이름이 희망되자 추모식장에는 수십초간 정적이 흘렀다.

안정호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안전을 요구하는 자리가 불법이 될 수는 없어 집회 방식은 피하고 어렵게 장소를 준비해 공식 행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기억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진다. 약속이 백지화되고 흩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라도 기억하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참석자들은 굳은 표

광주대표도서관 봉고 사고 유가족인 유모(27)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공개돼야 할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 전국 어디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사고가 발생했던 화정아이파크 201동을 바라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참석자들은 굳은 표

정으로 건물을 옮겨다봤고, 유가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실과 다짐이 교차했다. 추모식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안현 합평향교 전교의 집전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김이강 서구청장 등도 추모식 전 현장을 찾아 분향하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추모 성명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곧 책임지는 일”이라며 “같은 비극이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바꾸고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건설 현장에서 201동 23~33층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연상 기자

## 현산, 화정아이파크 봉고 참사 4주기 추모식 가져

지난 9일…안전결의대회도 병행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화정아이파크 사고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현산에 따르면 사고 4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센테니얼아이파크 현장 2단지에서 현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안전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사진〉

분향과 현화, 묵념 순으로 이어진 추모식 후 현장 직원 전원은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깊어졌다.

현장소장과 안전·품질 책임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사고가 발생했던 201동을 찾아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상태를 재차 점검했다.

정한효 현장소장은 “4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없는 현장, 안전한 현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산은 지난 2024년 12월 화정아이파크의 단지명을 100년을 뜻하는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했다.

현산은 이달 중 골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준공까지는 1년간 소요돼 2027년 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상 기자

## 檢, ‘정치자금법 위반’ 市교육청 전 간부 기소

‘동창 채용’이 교육감과 공동 피고인  
‘인사비리’ 간부 공무원 2명은 무혐의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기소했을 당시 시교육청 전 간부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전 국장을 이 교육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국장은 2022년 8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 전 국장의 범죄 혐의도 포착했다.

한편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C(50대) 사무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

이 교육감과 A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승진 청탁·금품 제공 혐의를 받은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로, 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도 요구했다.

간부 공무원 B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시교육청 상당수 직원도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 등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C(50대) 사무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

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검찰과 C씨 모두 이에 불복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재항고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해당 청구는 지난해 3월 광주지검이 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앞서 광주지법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모바일로 보고  
AI가 읽어줍니다.  
m.kjdaily.com

## 직원 극단적 선택 내몬 40대 구속기소

손해 변상·매출 부진 이유 폭행

신체포기 각서 등 가스라이팅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10년 가까이 폭언과 폭력, 사적 심부름 등을 일삼아 온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강요, 악사법위반교사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목포 한 허대전화 대리점 대표였던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살 많은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의약품을 대신 받아오라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대리점을 A씨가 인수하면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됐다.

그러다 2016년께 B씨의 행위로 매장에 손해

가 발생하자 A씨는 피해 변상 등의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 매출 목표를 정한 후 B씨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폭언 등 과롭힘을 이어갔고 악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시키며 B씨의 일상을 통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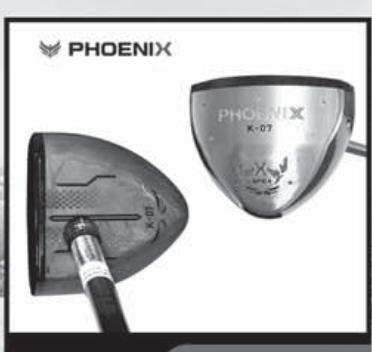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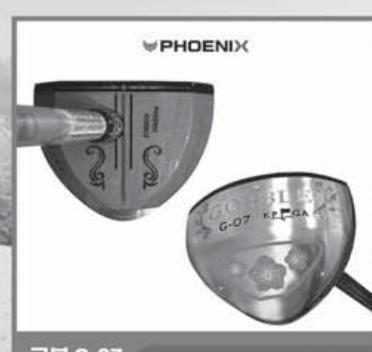
검찰은 약 10년간 걸친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B씨는 심리적 인질이 됐고 생존의 위협 역시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 의해 B씨가 신체포기각서까지 작성했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했다는 걸 밝혀내 강요와 악사법위반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www.sunparkgolf.com

